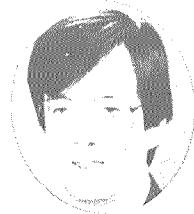


무 좀

알고 예방합시다.

무좀은 치료자 자신의
 끈기와 적절한 예후
 관리가 중요하므로 의사
 의 지시를 잘 따라
 야 한다.



국 홍 일

1. 머릿말

덥고, 끈적끈적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다. 땡땡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특히 흔한, 무좀이라고 더 잘 알려진 足部白癬이 극성을 떠는 계절인 것이다.

발가락 사이가 진무르고 찢어져 심하게 가렵고 발옆이나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며 부어올라 발을 끄적어도 괴롭히는 여름의 불청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좀이다.

수많은 민간처방과, 금방 낫는다는 제약회사의 약선전에도 불구하고 환자수를 늘려가기만 하는 이 무좀은 어떤 피부병인가 쉽게 풀이해 보자.

2. 무좀이란 어떤 병인가?

인간의 삶 주위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自生하고 있다.

무좀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미생물의 일종인 곰팡이로써 공기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곳에 眞菌胞子가 널려 있다가 인체 면역력이 쇠약해지고 살기좋은 조건이 형성되면 급격히 불어나 병변을 일으킨다.

인체에도 여러 곳에 침투하여 각종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부각질층에 침투, 병변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주는 병으로 이 무좀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이다.

발생부위에 따라 편의상 등이나 몸통의 병은 體部白癬, 사타구니에

붙어 부끄럽게 가려우면 頑癬, 손발톱을 부스러 뜨리고 흉하게 만드는 仆甲白癬. 발이나 발가락사이를 진물러 뜨리는 足部白癬등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足部白癬 즉 무좀에 관해서만 기술하려고 한다.

3. 무좀의 종류와 증상은?

무좀은 보통사람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진무르며 찢어지는 間擦疹型, 발 옆이나 밑에 수포가 생겨나 터지고 헤지는 水泡型, 염증이 거의 없으며 각질이 밀가루처럼 부슬부슬 떨어지면서 보기싫게 되는 鱗屑型의 3가지로 大別되어 진단에 어려움은 없다.

가. 間擦疹型 무좀

4번째 발가락사이가 진무르다 같아지며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여름과 같은 습기차고 高温의 환경에서 급속히 악화되고 세균의 2차감염이 쉬워 부어오르고 각질이 두꺼워져 흉하다.

3가지 유형 모두 짝기는 구두를 신음으로써 발가락이 붙고 통풍이 안되며 땀이 많이 나 곰팡이가 살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발병시초에 적절한 치료를 못함으로써 亞急性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다가 만성화하여 表皮탈락과 재발이 되풀이되어 완치시키겠다는

66

무좀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미생물의 일종인 곰팡이로써
공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
진균포자가 널려있다가 인체
면역력이 쇠약해지고 살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면
급격히 불어나
병변을 일으킨다.

99

투병의식을 약화시킨다.

발에 접촉성피부염등 다른 피부병이 생길수도 있지만 이 무좀은 발등을 침범하지는 않으므로 抗真菌劑의 사용이 선택되어진다.

여태까지 나온 항진균제는 톨나프테이트나 이미다졸계통의 약제가 포함된 크림이나 로션이 효과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먹는 무좀약도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치료를 촉진시킨다.

病巢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을 때는 되도록 운동을 제한하고 $KMnO_4$ (과망간칼리)나 백반액을 사용하여 하루 2~3회 Soakine(담가뚝)을 실시하며 칼라민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상태의 악화를 막는다.

나. 水泡型 무좀

간찰진형과 동반되어 나타날수 있으며 真菌에 직접 유발되기도 하

▶ 무좀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치료가 되지 않으며, 섭생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약화와 호전을 되풀이 한다.

나 眞菌이 배출하거나 파괴된 조직에 의한 인체의 과민반응으로 야기되기도 한다.

발바닥에 작은 물집이 생겨나 가렵고, 그 물집 주위에는 화농된 것처럼 벌겍게 되기도 한다.

물집을 터뜨리면 시원한데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젤라틴 같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며 터뜨리지 않으면 저절로 조직속에 흡수되어 두꺼운 황색의 鱗屑로 변해 벗겨진다.

가려움증은 수포가 생길때 심하면 보기 싫지만 터뜨려주면 가려움증이 감쪽같이 없어진다.

환자들이 자가치료할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접촉성피부염과의 구별이며 접촉성피부염일때 무좀약을 바르면 더욱 악화됨을 알아야 한다.

접촉성피부염은 수포성무좀같이 물집이 생기고 증상이 비슷하나 발바닥을 침범하는 일이 거의 없어 쉽게 알수 있다.

이 무좀의 치료제도 항진균제임은 말할 것도 없고 내복무좀약을 복용하고 항진균제연고나 로션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피부 깊숙히 형성된 물집을 터뜨리기만 할뿐 완전히 제거하지 말하



야 하며 박리된 피부를 통해 세균등 2차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다. 鱗屑型 무좀

이 형의 무좀은 앞서 기술한 두가지 형 보다 만성형이며 보다 광범위하게 각질층이 두꺼운 발뒤꿈치등에 국한해서 발생한다.

염증반응이 거의 없으며 병소에 부착된 鱗屑은 은백색의 광택을 띄어 쭈글쭈글해지고 보기 흉하다.

발에 땀이 많이 난다는 환자가 많으며 신체 다른 부위 특히 손에 감염시켜 엉뚱한 병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극히 만성적이며 건조한 병변때문에 乾鱗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만족할 만한 치료법이 어려우며 재발이 잘된다. 발톱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眞菌病에 이보다줄 계통의 복용약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먹는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며 톨나프테이트나 이미다졸계

통의 항진균제를 바르고 과망간칼리 1 : 5,000의 용액에 30분간 하루 2회 담그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다.

4. 豫防과 治療의 注意點

예방보다 나은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不變의 진리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건강할 수 없으며 허약한 틈을 타 몸에 병변을 일으키려는 위해물질이나 세균 등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만큼 많다.

그중에서도 무좀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섭생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화와 好轉을 되풀이해 病과 共生한다.

무좀의 원인균은 곰팡이이며 곰팡이는 덥고 습기찬 곳이 제일 좋은 생활공간이고 우리몸의 눅눅한 곳에는 항상 곰팡이가 자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발인데 발의 건강을 지키려면 몇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① 발은 체액이 밑으로 몰리고 땀이 많이 나는 곳인데다 관리를 소홀히하기 쉬운 곳이다.

특히 구두는 발가락을 모으고 축축하게하며 통풍이 안되는 필요악적 생필품이다.

가능한한 구두를 벗고 생활하며 양말은 땀의 흡수성이 좋은 면계통

을 신자.

② 외출 후 반드시 발을 닦고 건조시키며 무좀기가 있는 사람은 파우더라도 뿌리자.

③ 일단 무좀에 걸린 사람은 발을 닦고 난 뒤 거칠지 않은 방법으로 문질러진 피부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④ 일단 치료에 임하면 완치때까지 끈기를 가져야 한다.

약을 바르면 급속히 好轉되는 것을 다 나왔다고 착각,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되고 발의 위생이 나쁜 상태에서는 재감염도 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한다.

⑤ 발의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 이약 저약 아무것이나 바르다면 균의 내성을 키워준다.

워커를 항상 신고있는 특수신분의 사람들이라도 무좀기가 있을 경우 $KMnO_4$ 나 백반액에 30분정도 발을 담가 소독을 철저히 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무좀의 치료는 치료자 자신이 끈기가 부족해 재발과 재감염을 유도함으로써 불치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다.

끈기와 적절한 예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낫지 않는 병이 아니다.

<필자=이화의대 피부과학교수·의박>